

“민선 8기 주요 정책 독단·불통”...직설적 언행 도마 위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심창욱 시의원 ‘언과기실’ 비판 이귀순 시의원, SRF 중재 질타 강 시장 “시정평가는 공정해야”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강기정 시장의 불통 행태와 직설적인 언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시의회 심창욱 의원(무소속·북구5)은 16일 열린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실천보다 말이 앞서는 ‘언과기실’을 3년 내내 반복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광주시민단체는 민선 8기는 불통과 독선으로 업무를 했다고 혹평하면서 질타를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양심불량”, “함흥차사”라는 말로 무안군민을 자극했고, 영산강 익사이팅 존 조성 사업 관련 압수수색을 받아 “이따위 짓거리”, “개떡 같은 소리” 등 단체장으로서는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을 내뱉었다고 비판했다. 또 시의회와 지역사회와 사전 협의 없이 평생주택 정책, 지방채 발행 등 주요 정책을 독단적으로 추진했다고 꼬집었다.

광주 Y프로젝트 중 하나인 익사이팅 존의 주차장 조성 사업을 언급한 심 의원은 “복구 동리동 산동고 일원에 조성 중인 익사이팅존 내 하천부지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주차장 42면을 조성키로 한 것은 현행 하천법에 저촉된다”며 “하천침용허가를 받기 위해선 사전 협의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해야 하

고, 이후 기술 심사, 현지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허가 결정이 내려지는데 콘크리트 주차장 설치의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심 의원은 △자선C 진출입로 문제 △군 공항 이전 추진 상황 △대자보 교통 정책 △BRT 추진 적정성 △재정건정성 문제 등을 질의했다.

이귀순 의원(광산4)도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 사업 관련 공모사업 운영 실태와 기술검토 보고서 조작 의혹이 제기된다”며 “하천구역 주차장 설치도 가능한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광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사업(SRF) 중재 문제 △도시철도 2호선 관련 방수·BF인중·노선변경·신호통신공사 등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시정에 대한 평가는 공정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의 과정을 겪으며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뼈저리게 느꼈다. 광주시 행정이 자학적으로 평가되는 것에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익사이팅존 사업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환경부 고시에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은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며 “국가하천인 태화강, 한강, 낙동강 등지 하천부지에도 예외 조항이 적용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평생주택 자가용 미소유자 입주 문제에 대해 강 시장은 “평생주택은 대자보 정책 실행을 위한 수단 중 하나고, 차 없는 사람만 입주하는 문제와 왜 만원주택은 안되는지 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시의회와의 불



강기정 시장, 이동노동자 쉼터 ‘쉬소’ 개소식 참석 강기정 광주시장이 16일 광산구 월계동 365 이동노동자 쉼터 ‘쉬소’ 개소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통 문제는 “시의회 강행 처리 등에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 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을 통해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무안을 통합공항으로 만들자고 전남지사와 협의한다”며 “대통령실 주도 6차 TF 주성에도 앞장섰다”고 밝혔다.

SRF 중재 논란을 두고는 “거대 기업의 횡포로 보지만, 시 입장에서도 법률 검토나 자문,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며 “(SRF 분쟁과 관련해) 공무원 개인의 일탈과 비위가 있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이광일 도의원 “C형간염 예방, 포괄 선별검사 도입”

전남의 C형간염 유병률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가운데 예방을 위한 선제적 포괄 선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환경위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은 전남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남은 부산,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C형간염 유병률을 보이고 있지만, C형간염은 초기 증상이



없이 조기발견이 어렵고 예방 백신도 없어 근본적인 예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특정 위험군에 한정된 기존 검사 방식보다 무작위로 광범위한 연령대를 포함하는 포괄적 선별검사가 신규 감염자 발견에 훨씬 효

과적이다”고 제안했다.

앞서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 연구팀의 한국인 대상 C형간염 선별검사 도입의 경제성 평가 연구에서도 C형간염 선별검사가 발생률과 사망률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C형간염 퇴치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56세 C형간염 항체검사를 포함했다. 정근산 기자

조옥현 도의원 “미래항공교통 사업 지역균형 필요”

전남, 응급의료·물류실증 최적 “동부권 편중...서남권 확대해야”

미래 항공교통체계인 ‘AAM’ (Advanced Air Mobility) 사업 추진과 관련, 전남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 안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경제관광문화위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전남 열린 전남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AAM은 UAM(도심항공교통)과 RAM(지역항공교통)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전남은 도심보다는 지역



기반의 항공교통인 RAM 실증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이미 전남은 고흥에서 진행된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사업을 통해 관광, 물류, 응급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지형적, 사회적 기반을 검증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AAM 실증사업 대상지가 여수와 고흥 등 동부권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36년째 의과대학 설립이 미뤄지고

있는 전남 서부권의 열악한 응급의료 현실을 고려할 때 서부권까지 포함한 전남 전역으로 실증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기초지자체의 공모 신청 여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차원에서 전남 전체를 포괄하는 사업 기획과 지역 간 형평성을 조정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전남은 섬이 가장 많아 미래 항공교통의 실험장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관광과 의료, 물류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항공교통 실증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전남형 항공교통 생태계를 전국적으로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최선국 도의원 “지역출판·서점 활성화 뒷받침”

2개 지원 조례 대표발의

고사위기에 처한 전남지역 출판·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가 만들어진다.

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경제문화관광위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역출판진흥조례안’과 ‘전라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두 건의 조례안은 독서인구 감소와 온라인 유통 확산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출판 및 서점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문화의 자생력과 정체성



을 회복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출판 진흥조례안은 지역출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진흥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우수 출판물 제작 및 보급 지원 △교육청 및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에 대한 우선 지원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역서점과 출판사는 단순한 유통 구조를 넘어 지역의 기억을 보존하고 정체성을 전승하는 문화적 주체”라며 “이번 조례안이 전라남도가 주민과 함께 숨 쉬는 문화 생태계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역출판과 서점이 도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살아 숨 쉬는 문화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24 지역서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남 17개 군 중 7개 군은 서점이 단 한 곳만 남아 있는 등 지역문화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정근산 기자

정부, 광주시의회 제안 소방관 검진 등 수용

광주시의회가 제안한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10년 지원’, ‘골목형 상점가 화재공제 지원’ 등 2건의 건의안

에 대해 중앙정부가 수용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중앙정부

는 2건 건의안에 대해 정책 추진과 실현 가능성에 동의 뜻을 보내왔다.

해당 건의안은 퇴직 소방관 최소 10년간 건강검진 지원과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의 화재 공적 보험 가입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길용현 기자

상무지구 FUNIS

광주 최대규모! 세상에 없던 완벽한 즐거움!

스크린골프와 블링, Cafe & Lounge 등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365일 즐거움이 쏟아진다!

3F_SCREEN GOLF
동작높은 광우 최고 수준의 PPAR 시스템 스크린 12실과 부대시설

2F_SCREEN GOLF
동작높은 광우 최고 수준의 PPAR 시스템 스크린 11실과 부대시설

Fun it, us 1F_CAFE & LOUNGE
프라이빗하게 소규모 모임과 미팅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

B1F_BOWLING
고급스틸과 프리미엄 24레인 규모의 대형 bowling

Floor Plan

- 2-3F Screen Golf
- 1F Fun it, us Cafe & Lounge
- B1 Bowling

FUNIS
062. 374. 8181
광주광역시 서구 원빈리하로 192(서평동) 구, 상무리초컨벤션배움동